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초 안 요 약 서)

2015. 9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 초안요약서

1.1 계획의 내용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에 따른 수서역사 건설계획 확정으로 인해 향후 동남 생활권의 교통중심축으로 서울의 새로운 광역연계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교통수단인 KTX 개통에 따른 수서역 주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광역업무 등 새로운 토지이용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개발 사업지구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광역 및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전국적 교통망을 가지게 되는 수서역에 인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서울동남권 지역중심으로 위상정립을 위한 계획적개발과 정부정책 부응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도입을 위하여 수서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KTX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남권 광역교통 허브 조성을 위한 환승센터 구축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업무, 자족형 시설 도입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공공주택 도입

○복합개발과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안전성은 최고로, 소음·진동은 최소로 조성

- KTX 선로는 지하화 하고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업무시설 및 공공주택을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

수서역세권은 철도와 타 교통수단(광역버스, 시내 · 외버스)과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환승센터 건설로 서울 동남권의 첨단광역교통의 허브건설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서환승센터 및 역세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세권 개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계획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1.1.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15년(기준년도) ~ 2020년(목표년도)

나. 공간적 범위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자곡동 일원

－철도부지166,134㎡(43%)포함(철도건설사업부지)

○면 적 : 386,390㎡ (약 116,883평)

다. 토지이용 구상

1) 개발 기본 구상

가)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에 의한 압축도시 조성(Compact City)

KTX, GTX, 서울지하철 3호선, 분당선과 연계한 수서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엔터테인먼트·문화,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입체화·복합화된 압축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 Zoning Plan을 통한 공간 특화계획 수립

주요 앵커시설(수서환승센터 등)의 특화 계획을 통해 다양한 기능이 통합·융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Land－mark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세곡2지구와 수서환승센터를 연계하는 공원 녹지축내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집객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 광역교통의 최적 환승네트워크 구축

KTX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최단거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TX 및 GTX, 지하철, 공항터미널,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라) 저탄소 녹색 선도 도시 조성

○대모산과 탄천을 연계하는 Green－network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도모

○태양광, 태양열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

마)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기법 적용

수서환승센터와 연계한 비즈니스호텔, 레지던스 호텔, 오피스텔등 도심형 주거+업무용지 공급을 통해 도심공동화 방지 및 TOD을 실현할 계획이다.

바) 광역 업무 중심지 개발

광역 연계거점으로서 송파, 삼성, 강남지역의 업무와 연계한 서울 동남권의 광역 업무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2) 공간구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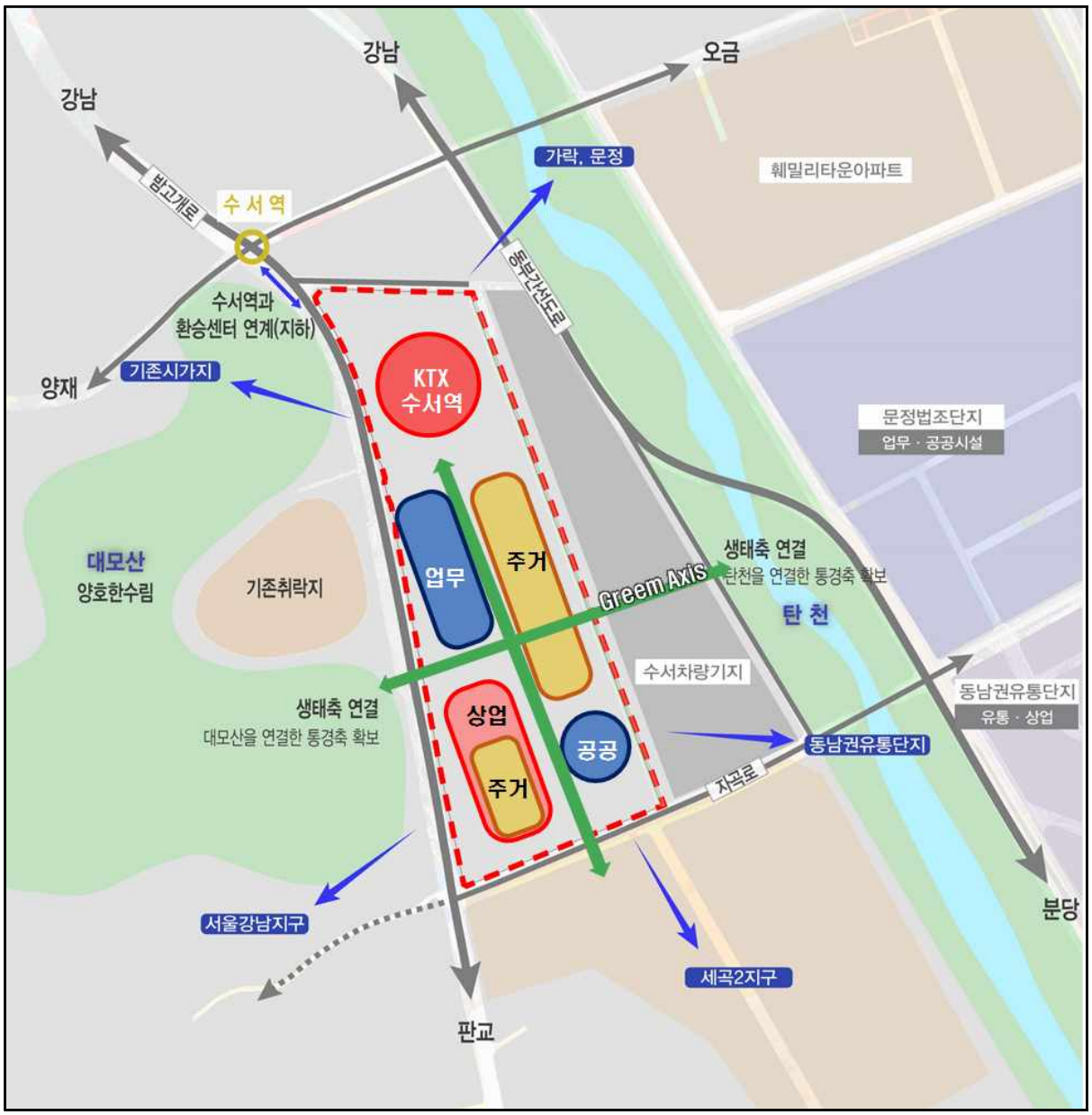
○ 지하철 3호선 및 분당선 역사와의 KTX 역사와의 효율적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수서역에 인접하여 고속철도 역사(환승시설) 배치

○ 계획지구는 수서역에서 남측으로 약 1,200m 이내에 포함되는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의 광역적 상업 ·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상업 · 업무기능 집중 배치

○ 세곡2지구 인접한 계획지구 남측은 업무시설 및 세곡지구 주거기능을 연계한 주거시설을 입지시켜 직주근접 및 행복주택을 통한 정부정책 실현

<표 1.1-1> 토지이용구상안

구 분	용 도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KTX 수서역 + 환승시설)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고용중심지 기능 조성 (R&D, IT, BT, 자족형 시설 등 유치)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입주자, 지역사회, 주민과 공유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타 공공시설구역	세곡2지구 및 수서역을 연계하는 녹지축 조성 (공원·녹지, 주차장)



(그림 1.1-1) 토지이용구상도

1.2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1.2.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육상식물

- 계획지구 내 산림은 분포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림식생의 훼손은 없음.
- 사업이 시행되면 계획지구 내의 대규모의 농경지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 절·성토 및 부지정지가 시작되면 절·성토 및 부지정지구간에 분포하는 식물종은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사시 비산먼지의 영향으로 계획지구 인근의 상수리나무군락과 가로수 및 조경수의 식물생육에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 육상동물

- 계획지구 내에 육상동물의 서식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에 시행에 따른 육상동물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변에 서식하는 육상동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
- 조류의 경우 안정된 지역으로 개체군의 이동이 예상됨.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서울시에는 자연환경자산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14개소,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1개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8개소 및 자연공원 1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계획지구와 5k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획지구와 약 15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영향권 밖으로 야생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인릉오리나무군락은 계획지구와 2.2k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감방안은 따로 수립하지 않았다.

현지 조사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법정보호종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문헌조사시 계획지구 주변으로 맹꽁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말똥가리가 확인되었다.

이 중 맹꽁이는 약 3km이격 되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시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말똥가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2> 계획지구 주변 자연환경자산 영향검토

구 분	분포유무	영향여부
생태·경관보전지역	○(14개소)	탄천 : 계획지구와 150m이격됨 헌인릉오리나무군락 : 계획지구와 2.2km 이격됨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1개소)	약 16㎞ 이격되어 영향 없음
생태·자연도	-	계획지구 전체가 3등급
야생동·식물보호구역	○(8개소)	약 8km 이격되어 영향 없음
자연공원	○(1개소)	약 22km 이격되어 영향 없음
습지보호지역	×	-
천연기념물	○(12개소)	약 12km 이격되어 영향 없음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백두대간 보호지역	×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 지정 등록된 지역	×	-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지구는 대부분 지역이 5°미만인 평탄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지형 변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시 부지정지에 따른 일부 지형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시 부지정지에 따른 절·성토 등으로 인한 토공량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지하층 조성에 따른 사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토공량의 이동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지구는 현재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공사시 비옥토가 유실될 것으로 판단됨.

○부지정지 등의 토공사시 나지로 노출되는 나대지의 경우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며, 이는 계획지구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탄천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토사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계획지구가 위치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으로 가장 가까운 지맥과의 거리는 약 7.2km로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지형축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계획지구 인근에 위치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중 가장 가까운 곳의 이격거리가 16.8km로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업지구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지대가 낮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성토 작업 등에 의하여 지형적인 변화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구의 자연·인문경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는 대부분 농촌 경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경관 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있음.

○본 사업은 자연경관 심의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음.

라. 수환경의 보전

○강우시 공사시행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에 영향이 예상됨.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 형태별 비점오염물질 발생 원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도시지역 상업지역 비점오염 유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2.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대기질

○공사시 절·성토의 토공사 및 공사 장비 운행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구체적인 공사시 토공량 및 장비 운영계획이 없어 추후 실시설계 시 예측할 계획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나.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 장비 운행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구체적인 공사시 장비 운영계획이 없어 추후 실시설계 시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예측할 계획임.

○ 계획지구는 현재 에너지 사용계획 미수립 단계로, 추후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계획임.

다. 토양

○ 현지조사 및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만족함.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의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장물 철거시 건축폐자재 중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자재가 분포할 경우 토양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소음·진동

○ 공사시

- 공사시 공사 장비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추후 실시설계 시 공사장비의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 예측할 계획임.

○ 운영시

- 계획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추후 실시설계시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소음을 정확히 조사하여 예측할 계획임.

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시

- 사업시행에 따라 계획지구 내 오수 및 생활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발생 폐기물 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적절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운영시

- 계획지구 내 수용인구와 영입인구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대책이 필요

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 공사시 투입인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추후 실시설계 시 공사시 투입인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량을 산정할 계획임.

○ 운영시

- 계획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추후 실시설계시 본 계획지구의 운영시 목표연도의 인구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을 산정할 계획임.

사. 인구 및 주거

○ 공사시

- 사업의 시행으로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인구 증가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운영시

- 주거생활구역의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환승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방문인구 및 이동인구의 증가 예상

1.3 환경영향 저감방안

1.3.1 자연환경의 보전

가.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계획지구 주변 가로수 및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시설 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시 토공작업 구간에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시킬 계획임.

○ 육상동물

- 공사 진행시 계획지구 외 추가적인 편입지역이 발생 지양해 추가 서식지 훼손을 방지할 것이며, 단계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야생동물의 인근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할 것임.
-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야생동물의 주 활동 시간인 야간에는 작업을 지양할 것이며,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임. 또한, 공사인부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 및 살생 금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 실시할 계획임.

○ 육수동물

- 가배수로, 간이침사지 등의 설치로 수계로 최대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함으로 종의 사멸, 감소 및 이동을 최소화 할 것임.

○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지은 사업의 시행과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훼손이나 간섭은 없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비산먼지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진·출입부에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차량의 덮개막을 설치하며, 정기적으로 살수차량 운행

○ 계획지구 주변에서 조사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적극 활용

- 공사시 하천 수계로 유입되는 탁수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계획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토목 공사 시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리한 정지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경관 및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사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http://www.tocycle.com/)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토사유출은 대부분 우수에 의해 발생하므로 우수에 의한 토사의 직접적인 유출을

배제하기 위해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임.

○ 표토 및 비옥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지정지 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공사 공정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토록 하여 조경 식재 시 활용할 계획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스카이라인

- 대모산 주변의 개발로 인한 경관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구릉지 주변 건축물에 볼륨감을 주어 배후 산림인 대모산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유도함.
- 고층 건축물로 인해 산림경관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산림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유도함.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대표 산림인 대모산(표고 294m), 인릉산(표고 327m) 방향으로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녹지축을 형성하여 지역의 산림 스카이라인과 녹지축을 보전함.

○ 녹지경관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경관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사업대상지 외곽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수서역 중심의 시가지역과의 연계성 및 쾌적성을 증대함.

○ 건축물 경관

- 획일적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일률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며 주변 건축물과 형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구축,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에 도심속의 친자연 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함.
- 지역의 랜드마크성을 강조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시각적 쾌적성을 고려하여 입체적 건축물 경관을 형성함.

- 건축물의 야간 조명은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현란한 빛의 색상, 밝기의 변화, 반복 점멸 등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대모산과 탄천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함.

○ 옹벽

-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공경관인 옹벽 등에 구릉성 산지경관의 녹지축이 사업대상지 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녹화를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함.
- 옹벽녹화를 통해 단기간 내 녹지 조성 및 경관 향상, 소생물의 서식처 마련, 도시 미기후 조절, 대기오염의 감소 및 방음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옹벽 녹화는 옹벽 아래 선형의 화단을 조성하여 벽면을 타고 오르는 덩굴성 식물과 초화류, 소관목을 식재하거나 벽면 상부에 이미 녹지가 있는 경우 하수형 식물을 식재함.

라. 수환경의 보전

○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해 오수 및 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의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계획

○ 계획지구 내(A=386,390㎡)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계획지구 서측 밤고개길(대로2-27)에 기 매설된 D500mm에서 분기하여 공급할 계획

○ 계획지구는 탄천처리구역으로서 계획지구 내 발생오수(일최대 Q=7.7천㎥/일)는 기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하여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

1.3.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대기질

○ 공사시

- 주기적 살수실시, 공사장 진출입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속제한 및 덮개설치, 필요시 방진망 설치 등 저감계획 수립
- 효율적 작업공정 수립 및 작업시간 조절, 건설장비의 적절한 운영 등을 시행하여 NO_2 발생저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미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청소원배치, 포장도로청소 등 기타저감방안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 운영시

-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킬 계획임
- 녹지지역에 대한 조경계획은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에 적응력이 강하며 정화능력이 우수한 환경정화수목을 선정 식재토록 할 계획임

나. 온실가스

○ 공사시

- 공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어대책 관점을 현장상황과 공종에 따라 검토·적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비 관리·운영체계 수립을 통한 엄격한 투입장비 운행관리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
- 공사 시 사용하는 장비는 가능한 신식장비 및 정비가 잘된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의 사용에 따른 연료의 효율이 최대화 되도록 함.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고효율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
- 장비의 용량은 공사에 최대한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가능한 소용량 장비를 투입하여 연료사용을 최소화 함.
-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에너지 절약 및 저연비 운전을 하도록 교육 실시
- 작업 중 장시간 공회전을 금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 효율적인 작업공정을 수립하여 장비의 이동 동선 및 운영을 최소화
- 장비는 정기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

○ 이용시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에너지 수급분석,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방안, 절수 및 절전설비설치, LED조명 등의 고효율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 건물 옥상녹화 방안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방안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을 수립할 계획

다. 토양

○ 장비가동시 유류누출방지

- 공사시 현장에서 가동되는 장비는 가동전에 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사용
- 현장에서의 폐유 교환을 금지시키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
- 장비고장 등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수거·보관된 폐유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폐유의 보관 및 반출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

○ 지장물 철거시 지장물내에 분포하는 유류, 폐유 및 정화조 오니 등은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건축폐자재 중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자재가 분포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

○ 매립폐기물 발견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3호(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기존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현장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토록 할 계획임.

라. 소음·진동

○ 공사시

- 주변정온시설에서 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구간 경계상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전달경로를 차단토록 할 계획임.
- 본 사업구간 공사시 예상되는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정온시설방향의 경계상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전달경로를 차단토록 할 계획이며,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예측소음도는 모든 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인 65dB(A)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은 거리이격 및 직각배치, 방음벽 설치 등 검토
- 철도소음은 사업지구 통과구간에서 철도진동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진대책 계획

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종이류, 합성수지류, 고철, 유리류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기타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계획이며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 후 처리할 계획

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 분리수거함, 이동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후 위탁처리
- 지정업소에서 폐유교환 실시 및 폐유저장소 설치
- 폐유·건설폐기물 위탁처리
- 순환골재 의무 사용으로 재활용율 증대

○ 운영시

-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발생원으로부터 최대한 감량화 및 재활용한후 해당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토록 한 후 거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최종처리 할 계획

사. 인구 및 주거

공사시 주변마을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며 운영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0.2.1.5 소음·진동』에서 저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